

이동걸 “대우조선 국유화 원치 않으면 노사간 협조 필요”

산업은행 회장 4주년 간담회
“쌍용차, 인수합병 마무리 기대
투자자 먹튀 논란 가능성 낮아
항공산업, 기업들간 사활 걸려
공정위 태도, 심히 유감스러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노조들의 기업결합 반대시위가 경쟁당국의 승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유에는 모든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금융지원없이 독자 생존할 수 없다면 상생협조위원회에서 차분하게 대처해달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다시 한 번 노사협조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13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과 관련한 EU 경쟁당국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현재 EU 경쟁당국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합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 대한 독과점 우려(시장점유율 60% 이상)를 해소할 만한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오히려 EU 경쟁당국의 부정적 결정에 노조의 반대 주장이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금융지원없이 대우조선

해양을 정상화할 수 있다면, 정부를 설득해 모든 금융기관을 끌고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조가 원하는 국유화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결합절차가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쌍용차에 대해서도 노사협조를 강조했다. 현재 기업회생 절차

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오는 15일 인수제안서를 접수 마감한다. 능력있는 인수후보자가 오더라도 노사의 협조가 없다면, 경영정상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곧 본입찰이 있을 예정인데 인수합병절차가 잘 마무리 되기만을 기대할 뿐”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못지 않게 노사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쌍용차의 신규투자자가 기업회생보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먹튀 논란’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장부지 이전을 하는 계획은 최소한 7~8년, 10여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공장부지 이전은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고 나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할 사안일뿐 단지 땅값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예를 들면 EU 경쟁당국의 경우 아마존 등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 경쟁당국이 보호하려고 나선다”며 “항공산업은 글로벌 기업들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다리고 앉아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단지 소비자의 주머니를 탐낸다는 의도로 보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항공운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며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이 도태시 생기는 파장력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값 하락세

추석 성수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지난 10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 가격을 지난 8월30일과 비교하면 계란(특란 30개)은 6524원으로 3.3% 하락했다. /뉴시스

8월 실업급여 지급액 7개월 연속 1조 넘어

**고용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지출액·신청자·수혜자 감소세**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7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고용 상황이 나아져 실업급여 지출이 1조원대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974억원) 대비 60.3%(-5.5%) 감소했다. 총 지급액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2월부터 7개월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었다. 이후 3월 1조1790억원, 4월 1조1580억원, 5월 1조778억원, 6월 1조944억원, 7월 1조393억원 그리고 8월까지 1조원대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월별 실업급여 지급 폭은 축소되고 있다. 8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9000명(-8.3%) 감소했다. 신규 신청자 수도 8만4000명으로 6000명(-6.8%)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1년 8월 고용행정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감소했다. 앞서 고용부는 빠른 경기 회복세와 함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출 규모가 1조원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정부 전망이 빗나갔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1조원대 지출 규모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직급여 지출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신청자와 수혜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백신 접종 확대 등 영향으로 고용 상황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7000명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40만 명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제조업은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이 개선세를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8만6000명으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디지털 전환 정책 등에 힘입어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30만1000명 늘었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가입자 수가 지난달 1만9000명 줄어들며 올해 3월 이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외식·모임 자체 등으로 음식업(-1만6000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의 구인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경영난 중소·중견기업에 19.3조 특별자금

금융위, 금융지원방안 발표

IBK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추석연휴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대출 1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추석연휴 중소·중견기업,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특별자금 19조 3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 한도로 총 3조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p)범위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총 2조200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 준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

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5조5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추석연휴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추석연휴기간(9월 18일~22일) 발생한 카드 대금은 9월 24일 입금된다.

추석연휴기간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도 조정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9월 23일일에 출금된다.

D+2일로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20~21일이 지급일인 경우 9월 23~24일로 미뤄진다. 예컨대, 9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21일이 아니라 9월 24일이다.

추석연휴기간 중단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단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은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나누리 기자

“은행·증권·손보 갖춰… 계열사간 협력·대응 예상”

>> 1면 ‘금융서비스 제동’서 계속

증권업계에서도 단기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규제는 지난해 사모펀드 상품 사고로 인한 금소법 강화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빅테크의 강점인 금융 상품 가입 절차의 간편함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소재 모

호성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긴 호흡에서 부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은행·증권·손해보험 라이선스를 모두 갖추고 있어 규제 강화 구간에서 그리고 금융권 저항 방어 측면에서 유리해 계열사간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구경희 SK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

로는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추가 진출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모아 놓은 고객들을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지급결제, 송금 등의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금융에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